

이책!

여전히 제주살이에 진심입니다



“오늘도 진심” 다섯 여자의 슬기로운 제주살이

도시의 숨 가쁜 일상에서 벗어나 나답게 살고 싶은 꿈, 아이를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은 바람, 하루하루가 여행 같았으면 하는 소망, 인생 후반을 건강하고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마음 등등.

서로 다른 이유로 제주살이를 결심하고, 설레고도 낯선 일상을 헤쳐나가며 차곡차곡 제주에서의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는 다섯 여자의 이야기가 책 '여전히 제주살이에 진심입니다'에 담겼다. 자신의 선택을 단단한 일상으로 만들기 위해 비바람 견디며 살아본, 시간과 경험에서 우러난 그들의 진짜 제주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육지 대도시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이 불편함이 많”기도 하고, “한 번씩 외로운 몸살을 앓”기도, “육지에 비해 문화 생활을 누릴 기회가 많지 않”기도 하지만, “매일 핑크빛으로 노을 지는 제주 하늘이 없이는 이전 살기 힘들 것 같다”는, 한 번씩 육지 나들이에 나서지만 “며칠을 못 버티고 서둘러 제주를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다는, 또 “자연을 누리는 삶, 소박한 문화생활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천천히 작품을 음미하는 여유”를 얻은 이야기들이다.

다섯 명의 작가는 4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로, 5년부터 10년까지 제주살이 기간도, 지금 제주 안에서 살고 있는 지역도 서로 다르다. 마주하고 있

는 상황과 고민, 삶의 모습도 제각각이기에 독자는 저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하고 공감할 수 있다.

출판사는 “먼저 살아본 이들이 들려주는 진짜 제주 이야기를 담아 제주살이를 꿈꾸지만 막막한 이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소개한다.

제주만의 운전법, 병원 고르기, 산책 코스 등 소소한 일상부터 새로운 일을 찾아낸 경험,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며 겪은 실수와 지혜 등이 담긴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생활 전반의 것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미리보기 할 수 있다고 전하며 “거친 바람도 투명한 햇살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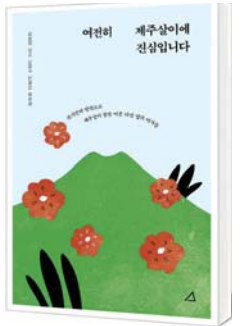
의 제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 진심을 만날 수 있다”고 덧붙인다.

프롤로그에서 “어떠한 선입견 없이 아름다운 제주의 바다와 오름을 바라보듯, 책 속에 담긴 삶을 찬찬히 읽고 감상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저자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제주살이를 그저 꿈으로만 남기지 말고, 책의 주인공들처럼 조금 용기를 냈으면 한다”고 권한다.

“제주살이 그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디 여러분이 되길.”

김정애, 로지, 신광숙, 안영은, 우희경 지음. 예문아카이브. 1만4500원.

오른지기자 eioh@ihalla.com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한 컷 한 컷 프레임이 모여 한 편의 장편 영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까. 나의 영화에 한 번쯤 로망이었던 ‘제주살이’를 찍어 보는 것도 꽤 매력적이지 않은가. -프롤로그 중-

역사와 문학, 여행으로 만나는 4·3

한강범의 '선생님, 제주 4·3이 뭐예요?'

저자는 “세계사적 대량학살의 4·3 진상규명과 4·3 이념정기와 4·3 도민운동이 언제부터가 정제되고 고인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하는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책 '선생님, 제주 4·3이 뭐예요?' (한강범 지음, 살림터 펴냄)의 처음을 연다.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됐다. 이론 부분인 1부에선 사회·역사·경제적 배경을 총망라해 지금 우리가 4·3을 바라보는 시선을 성찰하게 한다.

특히 저자는 4·3의 발생 원인을

제주민의 배경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정세와 강대국 주도의 역사까지 확장해 찾으려 한다. 또 4·3의 정명을 촉구하며 그에 대한 의미도 탐구하게 한다. 2부에서 저자는 제주 곳곳에 자리한 4·3유적지를 따라 유적마다 품고 있는 아픔에 집중한다. 그리고 각 유적지의 복판에서 시 한 수를 바친다.

3부엔 4·3 관련 인물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겼다. 가족사와 인물들의 스토리텔링으로 따뜻한 휴머니



즘과 숨겨진 일화들을 소개한다.

출판사는 “저자가 주목한 건 제주 4·3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이라며 “그 원인을 이해해야 4·3으로 벌어진 상처도 아물게 될 것이라는 신념이 강한 필자의 확고함이 나타난 책”이라고 소개한다. 1만8000원. 오른지기자

“교사는 정치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이정원의 '회색 교실'

제주한라대학교 방송영상학과 이정원 교수가 자신의 사회학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인문학 에세이 형식으로 다듬어 최근 펴냈다. '교사는 정치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부제를 단 책 '회색 교실'이다.

책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홍보담당과 정책소통관으로 일했던 저자의 교육 현장 경험과 사유, 연구의 결과가 녹아 있다.

열 개의 꼭지로 구성된 책에서 저자는 국가가 교사들에게 부여한 '정치적 중립성'을 비판적으로 분석, 성찰한다. 논문을 바탕으로 하지만 통계와 자료 중심의 기술에서 사례를 덧붙였다.

저자는 “교사들은 '중립성'의 경계선을 굽게 굽고 스스로 정치적 자율성을 스스로 감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보



니, 정치 경계를 넘나드는 아이들의 다양한 질문과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정치 중립의 경계를 뛰어넘는 용기를 갖는 데 이 책이 작게나마 도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한다. 한그루. 1만1000원. 오른지기자

새로나온 책



▶조현병, 낯선 자아와 떠나는 여행(앤 데버슨 지음)=자신의 아들이 조현병에 걸린 뒤 모든 순간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기록한 감동적인 실화. 자신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조현병 환자가 됐을 때 나와 내 가족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진솔하고 정확하게 알려준다. 책책. 2만원.



▶천년의 독서(미사고 요시아키 지음, 하진수 옮김)=책을 읽지 않는 시대다.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의 답을 찾아가며 고전부터 현대 작품까지 오랜 세월 수많은 이에게 읽혀 온 책들, 그리하여 '지혜의 목록'이라고 불려도 좋을 200여 권의 책들을 페이지 가득 펼쳐놓는다. 시프. 1만9500원.



▶유도라 허니셋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애니 라이언스 지음, 안은주 옮김)=자타공인 책을 사랑하는 작가 애니 라이언스의 장편소설. 누구나 맞이하 수 밖에 없는 이별,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필치를 통해 사랑스러운 할머니 주인공 캐릭터와 애뜻하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그려냈다. 1만7500원.



▶분자 조각가들(백승만 지음)=신약 개발의 최전선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과학자가 새로운 약이 창조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책이다. 약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의 역사를 다루는 인기 교양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저자가 신약 개발의 과거와 현재를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소개한다. 해나무. 1만8500원.



▶제주 여행 참견(장은정 지음)='나 홀로 제주'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여행 큐레이팅 전문가의 완벽한 제주 가이드. 전문 여행 작가가 쓴 2023년 가장 최신 여행도 SNS 해시태그 검색하듯 쉽고 간편하게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가이드북이다. 비타북스. 1만7000원.



▶조선미의 현실 육아 상담소(조선미 지음)='대한민국 부모 멘토 조선미 교수의 현실 조언.' 저자가 전문가적인 통찰과 30년 임상 경험, 식견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를 효과적으로 훈육해서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해 쓴 자녀교육서다. 북하우스. 1만7500원. 조성윤기자

대한불교 천태종 제주 문강사 부처님 오신날 행사 안내

2023년 5월 13일(토) 생전예수재 봉행 - 장소: 문강사 대웅보전
2023년 5월 27일(토) 오전 11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 - 장소: 문강사 대웅보전

5월 13일(토) 생전예수재 봉행 안내

- 1부행사 / 오후 2시 - 생전예수재
2부행사 / 삼회향불이(공연) 오후 6시
* 민요팀
* 문강사 합창단
* 뚜렷브라더스
* 마술공연

3부행사 / 오후 8시 부처님 오신날 점등 법요식

5월 27일(토) 오전 11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

체험행사 안내

- 오후 1시 ~ 오후 5시
* 종가마크 열쇠고리 만들기
* 미니 연등 소원지 달기(어린이체험)
* 빙떡 만들기
* 한치방 체험

대한불교 천태종 제주 문강사

(삼양 원당봉 내 문강사) 문의 064-755-8355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대 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일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크 품질인증' 01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